

학교 성교육 논란 지속...“전문성 강화 필요”

여가부·교육부 “학교 성교육에 바나나 등 음식 사용은 잘못”
전남교육청 “실습 성교육 적절...교구 가지고 오란 점 부적절”
전문가들 “전문인력 활용·교구 구입·다양한 콘텐츠 확보해야”

‘n번방’ 사태와 ‘스쿨미투’ 등과 관련 학교 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교육방식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답양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성교육을 위해 학생들에게 바나나를 준비하게 했다가 학부모 항의로 취소한 것과 관련, 교육당국으로부터 교육방식의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받았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이번 논란에 대해 고등학교 교사의 성교육의 적절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정식 도구를 사용하지

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콘돔 등을 활용한 실습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을 실습 도구로 활용한 점이며, 또 열린 교육은 현 청소년 세대에 맞춰 필요하지만 바나나를 활용한 점은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예전보다 훨씬 많은 성 관련 정보를 갖고 있다. 진부한 이론 교육보다는 실습이나 토론식으로 가야 하는 방향성 측면에선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적절한 실습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 ‘디테일’ 측면에서 아쉬웠다”고 지적하며 “음식을 사용하다 보니 진정성에서 오해를 살 수 있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식 도구를 활용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 역시 해당 학교 학부모로부터 항의 민원이 들어온 점을 인정하면서 “현시대 청소년에 맞춰 열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음식을 사용했다는 점에선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바나나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다 보니 청소년이 음식을 볼 때마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논란과 관련 기술가정 과목의 여러 전공 교사에게 성교육 관련 수업에 대해 문의한 결과, 임신과 출산 단원에서 성기의 실물 모형을 가지고 피임 실습이 진행됐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5년전 교육부가 제정한 ‘성교육 표준안’이 성폭력 피해를 막기 위한 방향에 초점에 맞춰져 현대에 필요한 성교육 내용은 사실상 빠져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현재 자녀들의 성에 대한 인식 정도를 잘 모르는 학부모들이 많은 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사고로 학교나 교사가 성교육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성교육 전문기관 자주스쿨의 김민영 대표는 “고등학생들의 경우 성교육 시간에 주로 자율 학습을 하는 등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교육 전문인력 활용, 교구 구입, 다양한 콘텐츠 확보, 교사의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위한 예산 사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국군화생방사령부 광주 요양원 정밀 방역 16일 오후 코호트 격리 중인 광주시 북구 생동동 한울요양원에서 북구보건소 방역반과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정밀방역팀이 실내 방역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직업계고 졸업 예정자 20% 이상 채용해 달라” 교장단, 글로벌모터스에 요청

광주 지역 직업계고 교장단이 광주글로벌모터스에 지역 직업계고 졸업 예정자의 20% 이상을 채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이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계고 인력 양성 및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최근 개최한 ‘광주형 일자리 13개 직업계고 교장단 협의회’에서 직업계고 교장단이 이 같이 건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광주 지역 직업계고 교장과 박병규 광주글로벌모터스 상생위원장, 직업교육 담당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가해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김용태 광주전자공업고 교장은 “타지역으로 광주 학생들의 유출을 막고, 서열화된 교육 구조의 틀에서 벗어나 직업계고 학생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

도록 광주형일자리가 힘을 보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규완 광주자동차설비공업고 교장도 “광주시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광주형 일자리(광주글로벌모터스) 채용이 20% 이상 할당되는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병규 광주글로벌모터스 상생위원장은 “광주형일자리는 지역사회가

양극화 해소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해법을 사회적 대화로 모색하고, 노사 관계와 산업 혁신을 통해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창출에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지역 혁신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며 “고교 졸업 이후 대학 진학을 하는 과잉 학력과 청년 일자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도록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광주대 ‘대학스포츠 학사관리지원’ 사업 선정

호남지역 대학 가운데 유일

광주대학교가 호남지역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2020 대학스포츠 학사관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 후원하는 ‘대학스포츠 학사관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대학 운동부 학생선수의 학교생활 적응 및 학업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광주대를 비롯해 경희대, 고려대 등 전국 11개 대학이 선정됐다.
김상엽 광주대 체육부장은 “이번 지원 사업 선정 평가에서 대학 학생선수를 위

한 정상적인 학업 수행 기반 마련과 우수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원활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 지난 2년간 대학스포츠 학사관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시범 운영을 통해 ▲학생선수 학사관리(과제, 시험, 보충수업 등) ▲학교생활 적응 및 학업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광주대를 비롯해 경희대, 고려대 등 전국 11개 대학이 선정됐다.
김상엽 광주대 체육부장은 “이번 지원 사업 선정 평가에서 대학 학생선수를 위

광주교육청 소속 6개 도서관 주간예약 대출 서비스

광주교육청 소속 6개 도서관이 학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간예약 대출 서비스를 한다.
해당 도서관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금호평생교육관, 광주송정도서관, 광주중앙도서관, 석봉도서관 등이다.
주간예약 대출 서비스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다.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1인당 한 번에 최대 5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한 상태로 신청 다음 날(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각 도서관이 지정한 장소를 방문해 도서관 회원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책을 수령한다. 수령한 책은 3 주내에 각 도서관 무인반납기에 반납하면 된다.
/김대성 기자 bigkim@

광주 북구 ‘복스타트 부모교육’ 온라인 강좌

광주시 북구가 육아와 자녀교육을 고민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16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일곡·운암도서관에서 다음달 27일까지 ‘복스타트 부모교육’ 온라인 강좌를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올바른 관계형성을 지원하고 독서지도, 양육법 등을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기기가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일곡도서관에서는 다음달 25일까지 ▲

행복한 영재를 만드는 엄마습관 ▲행복한 인재의 핵심은 책에 있다 ▲배려깊은 사랑 ▲사랑하는 아이에게 화내지 않으려면 등 총 4회에 걸쳐 온라인 강의가 진행된다.
운암도서관에서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엄마표 영어 ▲공감의 방법 ▲I-Message방법 -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위한 소통의 방법 등을 주제로 강의가 준비된다. 강좌에 관심 있는 주민은 광주시 북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상록도서관, 온라인 ‘슬기로운 집콕 글쓰기 강좌’

광주 서구 상록도서관이 코로나19에 응해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슬기로운 집콕 글쓰기 강좌’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도서관 방문이 어려워진 주민들을 대상으로 독서문화 욕구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은 8월 4일부터 8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총 4회에 걸쳐 ‘엄마의 글쓰기’·‘부모와 아이의 소통 일기’ 등을 쓴 귀한 작가의 실시간 화상 강

의로 진행된다.
강좌는 글쓰기를 바탕으로 한 특강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강의 플랫폼 ‘Zoom’ 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작가와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개인 PC, 노트북으로 온라인 강의 참여가 가능한 지역주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7일부터 광주 서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록도서관(☎350-459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